



8일 김상음악회 열어
법정 서울 김상사 회주는 8일 서울 성북동 김상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5회 김상음악회를 개최한다. (02)3672-5945



일주문



옥조근정훈장 받아
이원주 전 명성여고 교장은 4월 24일 교육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정각원 개원법회서 법문
현성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는 6일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정각원 집안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삼광 효행상 시상·경로잔치
도원 부산 삼광사 주지는 4월 28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제9회 삼광 효행상 시상식 및 제13회 삼광경로 잔치를 개최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원
각현 (사연꽃마을 대표)이사는 1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서울광명 의원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천안경찰서, 봉축법회
법회 총남 천안경찰서 경승실장은 4월 30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2003년도 강원 경승총회
원행 강원지방경찰청 경승단장은 4월 25일 춘천 베이스타운 대연회장서 2003년도 경승총회를 개최했다.



불교방송 개국 13주년 법회
김규철 불교방송국 사장은 4월 30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개국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세종문화회관 사업본부장에
이강렬 불교인권위원회 국제분과위원장은 1일자로 세종문화회관 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됐다.



蓮차 그릇 도예전 열어
김기택 대구공업대학 교수는 4월 28-30일까지 연(蓮)차 그릇도예전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주최로 대덕문화전당 전시실에서 열었다.



운연사서 신수회 수련회
이남숙 신수회장은 17-18일 1박2일간 대구 운연사에서 정기수련회를 개최한다. 016-265-6258

민족문화정책연 부산지부 개소



민족문화정책연구소 부산지부(지부장 김종길)는 4월 28일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개소식과 함께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성래 변호사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후원회장 대상스님,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여의구 이사장, 여의선원 정여스님을 비롯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창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부총추위원회는 4월 30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남북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조해령 대구시장을 비롯 지역 신행·기관체장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위원장 지성스님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과 내가 한 뿌리, 한 생명이란 동체대비심을 발하자"고 말했다.

통일·대구시민 위한 기원법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4월 21일-22일 전남 송광사에서 '제7회 전국여성지도자 연수교육 및 집단상담교육'을 개최했다. 여불련 각 지부 임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 주제 강의와 집단상담교육, 여성불교 활동을 위한 실무 강의 순으로 진행했다.

여불련, 여성지도자 연수교육



대한불교 원효종 경주 여래사 주지 법경스님(경북종무원 원로원장)은 4월 27일 경주 서천 장군교 390여 미터를 연등으로 장엄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종단 원로스님을 비롯해 신도, 경주시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했다.

경주 여래사 거리연등 점등식



서울 성북구청 법륜회(회장 정후시)는 4월 28일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수)의 합동으로 '부처님오신날 성북구민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경곡사 주지관 스님을 계사로 수계식을 갖고, 5명의 경찰공무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북구청 법륜회 수계법회



“문화재 정책 중단 적극 참여”

문화재위원회에 위촉 현고 스님



때문이다. 현고 스님은 “그동안 문화재 정책과 관련해 불교문화재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중단 내에서 많았다”며 “문화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단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스님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빼뜨리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에 참여하려면 아무리 스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일정 정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춰야 하는데 사실 그만큼 분을 찾기 힘든 것도 현실이다. 스님

지난 4월 26일 문화재 보존관리 등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임기 2년의 문화재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 스님의 첫 마디는 “숫자적인 측면(스님 2명)에서는 아쉽다”는 것이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70%가 불교문화재이고 조계종이 국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불교문화재 특히 건조물문화재나 동산문화재의 경우 스님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고, 실제로 신앙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재와는 구별되는데, 문화재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아! 큰스님 자수展

구산 스님 23년만에 친견한 감동

전시회 둘러본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장



“저도 평생 자수만 해온 사람이라 이번 전시회를 본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특히 지난 79년 ‘팔상도’를 자수로 제작해 전시회를 가졌을 때 가장 큰 격려를 해 주신 송광사 방장 구산 스님의 진영 자수를 보고 23년만에 직접 친견한 것 같아 몽글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수연구가 남상민 씨(69·한국예절문화원장·사진)는 전시회를 본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수는 규방공예로부터 시작해 십자수와 생활자수가 많은데 북한은 기초가 탄탄한 전문가들이 만들기 때문에 색채의 조화와 기법이 매우 섬세하다고 남 원장은 평가한다.

“인물을 자수로 놓는 초상자수는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기법입니다. 작품의 구도와 밑그림 등이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투철한 장인정신이 엿보입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남북한 예술가 교역 큰 보람

전시회 주관 이용주 핸드코리아 대표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핸드코리아 이용주 대표(47·사진)는 4월 29일 전시회가 끝난 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전시작품 모두 북한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승인절차가 복잡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한 불교와 북한 예술이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대표 자신도 북경에서 작품들을 처음 본 순간 섬세함과 화려함에 매료됐다고 밝혔다. “언뜻 보니 붓으로 그린 것 같더군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한 뼘 한 뼘 수를 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전시회 기간동안 관람객들도 제 마음과 같은 것이란 생각이 그동안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군요.”

이 대표는 올해 안으로 문화를 통해 남북한의 불교가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법종사 불교대학 1기 수강생 모집

오대산 월정사 서울포교원인 도봉구 법종사가 불자가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터득하는 참여불교의 불자교육을 시작합니다. 간경형식의 기초교리, 발상을 통한 염불교육의 방식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 차별화된 불교교육으로 퇴화된 의식을 일깨워 불자 스스로가 진일보하는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 개 강 : 2003년 5월 23일(금) 오후 2시 / 법종사 천불전 (4층)
- 강의시간 및 내용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2시간)
 - 강의내용 : 전반1시간 - 일반기초 불교교리 (간경형식의 교육) 후반1시간 - 재가불자 영불 연수교육
- 교수진
 - 일반기초 불교교리 : 무주 스님 (법종사 주지)
 - 재가불자 영불 연수교육 : 성마 스님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교수)
- 준비물 : 필기구 - 수강료 : 월별 자율시주
- 대 상 : 불교를 알고자 하는 재가불자, 각 사찰 신도
 - ※ 법종사 신도는 의무 수강 (신도 재 교육 의무 수강)
- 접 수 : 수시접수
 - ※ 전 3개월 과정으로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1년에 2기 배출
 - 대 개수 마지막 강의는 오대산 월정사 현해 큰스님의 경전 법회로 마무리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 월정사 서울포교원 **법종사**

회주 현해 주지 무주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525-3호 전화 02-905-6666, 995-6777 팩스 02-902-6777

觀 실 줄 아는 지혜

禪은 觀行이다.

이 책 “관은 실 줄 아는 지혜”는 반야심경을 수행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기존 반야심경들이 문자의 뜻만을 해석한 것과는 다르다. 이책에서는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을 써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내자신이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쓰는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했다. 정신적 방황을 하면서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보다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밝혀서 넉넉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조화로 운 삶을 통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지침서이다.

반야의 새는
조건의 법을 머리로 삼고
각성의 법을 몸통으로 삼으며
오온의 법과 개공의 법을 양 날개로 삼아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날아간다.

도서출판 연화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1리 887-2 (054)682-1042. (054)682-8145
이책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성실하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김춘기(054)682-1042 (http://www.kwan.or.kr)